

투데이 칼럼

북한의 차량 소유 허용

북한이 올해 초부터 주민들에게 자동차 소유를 허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에서 개인의 차량 소유권이 인정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 주목된다.

주민이 자가용을 실제로 구입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았지만, 이 조치가 북한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인 명의의 자가용 허용, 과연 북한 사회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북한 차량 대부분은 국가 또는 기관의 전유물로 알려져 있다. 개인이 차량을 소유하는 일은 상상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경제활동을 위해 차량을 이용하는 주민들 역시, 대부분 기업이나 기관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해 사용하는 방식을 택해왔다. 밀수나 기타 비공식 활동에 나서는 경우에도, 공식 등록된 차량을 암암리에 이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 북한 당국이 민법까지 개정해 주민들이 차량을 보유하도록 허용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이 같은 변화의 의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2월 수정 보충된 북한 민법 134조에는 북한 주민들이



정복규

논설위원

“합법적인 등록을 거쳐 승용차와 같은 운전기재, 부림 짐승을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개인 차량 보유를 허용한 가장 큰 이유로 내수 소비를 촉진하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한다.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소비해야 한다. 북한이 경제적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에는 구매력 자체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구매력이 있는 집단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다. 구매력을 갖춘 집단이 자신들이 원하는 소비를 하고 그 소비가 합법적으로 인정받고 그것을 통해 좀 더 많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선순환이 만들어지

고 있다.

1990년대 경제난 이후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화가 확산되면서, 장사를 통해 자산을 축적한 ‘돈주’ 계층이 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는 차량을 가질 수 없었지만, 기관이나 기업소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뒤 실질적으로는 개인 소유처럼 운용해 왔다.

이런 ‘위장 등록 차량’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경제 활동을 제도권 안으로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023년 기준, 북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23만 4천 대로 한국의 약 111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낮은 보급률 때문에 오히려 판매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꼽히기도 한다.

특히 차량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경제력과 신분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어

여유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자동차는 부의 상징이고 자신의 경제적 수준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 자본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차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 생산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부품 조립이나 수리 기술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

대북제재로 자동차와 부품 수입이 모두 금지된 상황에서 북한 자동차 제조회사도 자체 개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수송과 유통 분야에도 점진적인 변화가 뒤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 당국 역시 자동차가 건설 경제 분야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한편 기대와 달리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먼저 경제력을 갖춘 이른바 ‘돈주’들이 국가 감시라는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해 공식적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겠느냐는 것이다.

또, 차량 기종이나 연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북한에서 승용차 한 대의 가격은 적어도 중국 돈 8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정미현 수묵 작품전

정미현 작품전이 6월 6일부터 12일까지 전북예술회관 1층 기스락 1실에서 열렸다. 주제는 ‘수묵으로 화답하다’였다. 이번 전시회는 수묵화 작품집을 발간하며, 198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작업을 한 자리에 펼쳐지게 되었다.

자연(自然), 생(生), 묵상(默想), 묵의 사유(思惟), 소리의 은유, 상생의 주제들을 수묵(水墨) 작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즉흥 작업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순간들과 마주하고 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또 하나의 나를 일깨우며 수묵의 표현으로 그림에 담았다. 화(和)는 모든 존재의 열이 어울려 조화와 상생을 이루어가는 미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수묵은 자연과 음률이 지닌 고요함과 역동적 에너지를 담고 있다. 수묵 그림을 통해 그 질서를 이해하고 큰 어울림이

되어 깊은 울림으로 발현되는 수묵의 은유로 화답하였다.

작가의 작업은 자연스럽다. 대사의 이미지를 떠올린 직후에 즉발적으로 화면에 옮기는 이미지 연상과 추적에 의한 이미지 회화의 면모를 보여준다. 그의 회화는 기의 회화이자 행위의 회화이다.

고고한 정신세계를 동시에 보여주기기도 한다.

독특한 미적 감각과 사고 그리고 작가 특유의 은유의 미학을 동양화라는 틀에 접목시킨 결과이다.

궁극적인 대상을 통해 그려내는 정미현 작가 가슴에 담기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무질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의 원리로 드러나는 세계이다.

정미현 작가는 10회의 개인전 및 다수 초대전과 단체전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회화회 그룹을 중심으로 전북 완주에서 현대수묵 작업을 하고 있다.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창립 71주년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창립 71주년 기념식’이 지난 5월 27일(음력 5월 1일) 전국 목회자 및 신도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천원궁 천승교회에서 거행했다.

지난 4월에는 평화세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선보인 ‘천원궁 박물관’을 개관했다.

천원궁 박물관은 인류공동체의 모델을 향한 평화교육의 전당으로 다목적 홀,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조성됐다. 그중 천일성전(天—聖殿)은 인류의 부모 되시는 하늘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세워진 천지인(天地人) 성전이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5명이다.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로 ‘국가 위기’를 맞았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의 가치를 강조하는 가정연합의 국제합동축복결혼식은 저출생 원인인 비혼주의 문제를 극복할 좋은 방안으로 평

가를 받고 있다.

가정연합은 한국에서 태동해 세계 각국에 확산된 K-종교(Religion) 원조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신자들이 ‘성지 순례’를 위해 신앙의 조국인 한국을 직접 방문하고 있으며 올해도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등 많은 해외 신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한국에 정착해 살고자 하는 외국인 신자도 늘고 있다. 가정연합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글로벌 종교로 중단 없는 전진을 할 것이다.

가정연합은 1954년 5월 1일 서울 성동구 북학동, 지금의 중구 신당동 세대문집에서 창립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일본과 미국에 선교사를 파견해 현재 전 세계에 200여 개의 선교국가를 두었다. 명실상부 세계적 종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영원의 불꽃’에 헌화한 러시아 청소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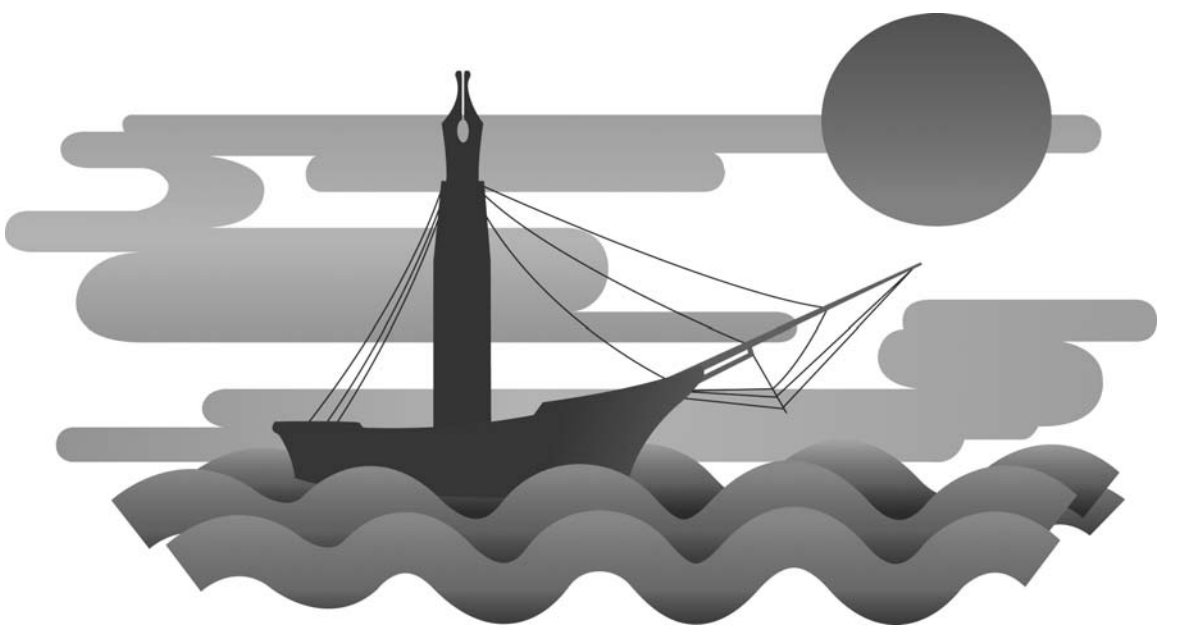


지난 12일(현지 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포클론나야 언덕의 전승 기념탑 앞에서 러시아의 날을 맞아 러시아군이 청소년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해 후원하는 단체 ‘유나르미야(Yunarmia) 회원들이 ‘영원의 불꽃’에 헌화한 뒤 경례하고 있다.

TV로 이란 공습 뉴스 접하는 파키스탄 사람들



지난 13일(현지 시간) 파키스탄 페샤와르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